

AI교과서 등 교육개혁 순항... 연내 유보통합 법적근거 마련

尹 정부 임기 반환점

교육부, 교육분야 성과·계획 발표
학교 디지털 인프라 구축 막바지
“내년부터 ‘RISE 체계’ 본격 가동”

교육부가 내년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학생 1인 1기기를 완비했다. 일각에서 ‘구독료 부담’ ‘학생 미디어 노출’ 등 우려가 제기됐지만, 정부는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완료에 이어, 전국 시도교육청에 각 테크센터를 운영하고, 교실 무선 인터넷 증속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19일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그간의 교육분야 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를 ‘교육개혁 원년’으로 선언하고 ‘교육의 힘으로 사회 난제 해결’이라는 비전 아래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목표로 3대 분야, 9대 과제를 정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교육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교육부

해 추진해 왔다. 교육 현장 최대 화두로 꼽히는 AI 디지털교과서는 내년 초·중·고교에 예정대로 도입한다. 교육부는 2025년 초등학교 3·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한다.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 과목과 학년을 확대해 2028년에 모든 과목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9일 첫 검정교과서를 선보일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내년 3월 도입예정인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완료했다”라며 “이달 말 검정 심사 결과 발표가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프라 구축도 마무리 단계다. 오차관은 “AI 디지털교과서 적용을 위해 필요한 학생 1인 1기기도 완비했고, 전국 교실의 무선 인터넷도 최대 10기가(G)까지 증속도 추진하고 있다”라며 “1만 여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선도교사 연수도 실시, 학교 디지털 인프라 전담인력인 디지털튜터 1200명도 양성하고, 시도교육청별 테크센터도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만 3~5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질적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유보통합은 올해 말까지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교원 자격, 설립·운영 기준 등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기준을 확정해,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을 통합한 법을 의미한다.

오차관은 “교육개혁의 첫 번째 분야는 바로, 보육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책임 교육·돌봄’”이라며 “지역 단위의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체계를 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도 연내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초등 돌봄을 확대 개편해 진행 중인 ‘늘봄학교’는 참여 학부모 80% 이상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늘봄학교는 방과 후 학교에서 돌봄과 교육을 받는 서비스다. 올해 초등 1학년 희망자 29만3000명이 2시간 무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지원 대상이 초2까지 확대된다.

대학 분야에서는 교육부의 대학재정 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지자체는 대학과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반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 체계)가 구축된다. 이에 따라 연간 총 2조여원의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권한은 광역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오차관은 “지나해부터 7개 시도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며 “17개 시도에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지역라이즈센터를 지정하는 등 지역 추진체계 구축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 논란

“공정성 무너져” vs “지나친 흠집내기”

〈서울시의회〉

〈오세훈 시장〉

박유진 의원, 사전합의 의혹 제기
오세훈 시장 “걱정하지 마시라”

여의도 선착장 조성 사업 과정에서 서울시 행정의 공정성과 과정의 투명성이 무너졌다는 야당 서울시의원의 지적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나친 흠집내기”라고 맞서며 반박했다.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여의도 선착장 조성 사업의 문제점으로 ▲공모 수준의 사전 합의 ▲사업이행보증서 제출 기한

위반 ▲5차례, 총 10개월 연장된 완공일 ▲민간이 영구 소유할 수 있는 계약 ▲허위로 제출한 잔고증명서 ▲자본금 부족 ▲서울시의 거짓 해명 ▲안전도 떨어뜨리는 공법을 꼽았다.

우선 박 의원은 사업 제안서와 공모(公募) 지침서의 내용이 상당 부분 유사한 것을 두고 공모(共謀) 수준의 사전 합의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박 의원은 서울시와 사업 협약을 맺은 업체가 사업이행보증서를 당초 계약상 기한인 협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아닌 1년 5개월 뒤에 낸 것도 문

제 삼았다. 박 의원은 “민간이 투자해 20~30년 동안 운영한 뒤 투자금이 회수되면 서울시가 기부채납 받게 돼 있는데 여의도 선착장 조성 사업은 기부채납 방식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의 안전을 걱정해주는 건 정말 고마운데 의원님이 말한 대로 (여의도 선착장이) 정말 황당무계한 안전 상태라면 흥수한 번만 나면 때려버려야겠다. 그러면 저 회사 망한다. 저 사람 파산한다. 걱정하지 말라”고 비꼬았다. /김현정 기자 hjk1@

서울시 후불 기후동행카드 선포

교통비 절감과 생활 속 친환경 실천을 돕는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에 신용·체크카드 기능이 더해진다.

서울시는 한 장의 카드로 일반 구매와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본격적으로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는 ▲신용·체크 카드결제 ▲자동 청구 ▲충전·환불 없이 이용 등이다.

오는 25일부터 사전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개시일은 30일이다.

/김현정 기자

서울교통공사 노조, 내달 6일 총파업 예고

구조조정 중단, 인력충원 등 요구
“위험하고 잘못된 정책 멈추자는 것”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인력 감축과 1인 승무제 도입 철학을 촉구하며 내달 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조정 중단 ▲신규 인력 충원 ▲1인 승무제 도입 반대 ▲부당임금 삭감 해결 등을 요구하며 총력 투쟁 방침을 발표했다.

노조는 “우리의 투쟁 목적은 열차를

멈추는 게 아니라 위험하고 잘못된 정책을 멈추자는 것이다”며 “서울시나 사측이 대화와 성실 교섭에 응하지 않고 ‘노조 때리기’를 동원해 문제를 호도하거나 겁박과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노동조합의 극한투쟁과 파업을 부채질하게 될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다음달 6일 총파업 디데이까지 성실 교섭과 서울시, 공사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단체 행동을 확대하며 총력 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문화의 날’ 통해 예술인-도민 연결

117개 단체 지원... 306회 공연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이 도내 문화예술인에게는 활동 기회를, 도민들에게는 각종 예술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도는 올해 117개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해 11월 현재 기준 총 306회 공연을 진행했다. 올해 나머지 기간 동안 51회가 진행될 예정으로 총 공연회수는 357회가 된다.

경기도는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2020년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의 날로 지정해 경기도 전역에서 문화 행사를 펼치고 있다.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은 경기도 문화의 날에 도내 문화예술단체들이 공

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까지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매칭사업이었다가 지난해부터 경기도가 100% 지원하는 직접사업이 됐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189개 프로그램을 지원했고 지난해는 249개 단체, 올해는 117개 단체를 지원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올해 공연 사례를 살펴보면 분당윈드 오케스트라는 지난 9월과 10월 경기도 문화의 날에 수원 광고호수공원과 제1야외음악당에서 클래식 공연을 펼쳤다.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클래식 공연을 야외에서 펼쳐 도민 누구나 클래식 음악을 즐길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경기=유진재 기자 yujin@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17 | 해질 / 17:18

11월 20일(수)
음력 : 10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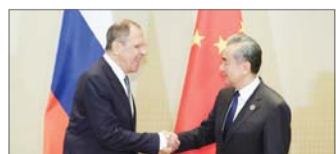
수도권 날씨
2 ~ 12 °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1/10, 동두천 -1/10, 가평 -2/11, 파주 -2/10, 서울 2/12, 양평 0/12, 수원 2/12, 용인 2/12, 평택 1/12, 백령도 8/13, 인천 4/12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뉴스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중·러 외무 회동서 “협력 강화”... 한 반도 정세도 논의 /사진 뉴시스
▲지방위상, 20일부터 라오스 방문...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석

▲EU 외무장관들, ‘이스라엘과 외교 대화 중단’ 거부
▲우크라이나 외무 “러시아 본토 타격은 ‘게임체인저’ 될 것”



▲美 법무장관 후보 논란 가중... 여성 2명 “돈 받았다” 증언 /사진 뉴시스
▲“美 법무부, 법원에 ‘구글 크롬 매각’ 요구키로 결정”